

총지인의 힘을 모아 세계로 뻗어 나갑시다.

불교총지종 제11대 종령 추대법회가 2월 14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봉행되었다. 진각종 혜정 통리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법통이운을 시작으로 열렸다. 법통을 전수받은 효강 종령은 원정대성사의 법통을 이어받아 총지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년을 이루자고 서원했다. 지성통리원장의 봉행사와 대원 중앙총회의장의 추대사, 혜정 진각종 통리원장과 김은숙 서울, 경인 신정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취임법회로 총지종 새중풍운동의 박차를 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11대 효강 종령 취임법어

만사가 수연이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지난 7년 동안 부처님의 가지와 종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임기를 마친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으나 승단의 추대 결정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밀교종흥과 종생구제의 대비원을 세우신 종조님의 유훈을 계승하고자 일신을 다 바치는 것이 법제자다운 일이라 생각하고 수용하였습니다. 종령이라는 자리가 한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종단을 위한 자리입니다. 종조님이 창종하신 우리 총지중 종흥을 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구제를 해서, 많은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중흥 사업을 활발히 전개 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새 종풍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합니다. 그 행동 지침으로서 제가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매일 주석으로 매일 암기하고 독송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되새기면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 정진하며 전신적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둘째, 정제는 부처님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합니다. 넷째, 생활 불교를 실천하고 흥포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을 바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실천 사항의 준수로 우리 종단을 반드시 중흥시켜야겠습니다. 종령의 자리에 취임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지와 종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저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돌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부처님 사상이 불이사상(不二思想)인데, 너와 내가 돌이 아니고, 중생과도 하나라는 삼평등 사상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립적이고, 나만 잘 살아야겠다는 이기심, 특히 우리 승직자들은 이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교도 대표들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모두가 그러한 정신으로 생활해야만이 우리 생활도 풍요롭게 됩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정신 아래에서 총지중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유능한 종단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대비만행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성불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지가 총만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대비만행에 용맹정진합니다.

그러한 밀교로 원정 대승사께서 총지중을 창종하셨

세계로 뻗어가는 총지중 종흥의 원년을 이루자

불교 총지중 제11대 종령 효강대종사 취임법회 봉행



효강대종사가 불교총지중 제11대 종령에 취임하였다. 2월 14일 총지중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전국 교도 대표 및 혜정진각종 총리원장 등 내외 귀빈이 동참한 가운데 제11대 효강대종사 종령 취임법회가 봉행되었다. 법통이운을 시작으로 거행된 취임법회는 효강대종사의 취임선서에 이어 헌화와 훈환정공, 봉행사, 취임법어, 추대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성 총리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효강대종사님께서는 숭고한 진언과 수행, 엄격한 의례의 진언법으로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 종조님의 법통을 수승하고, 받들어 종단의 정제성을 확립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런 밀법의 체득을 강조하시고 실천한 분

입니다. 이제 효강대종사님은 다시 종단의 종령으로 추대되심으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종단의 교법과 사법을 관장하시고, 넓고 깊은 해안력의 반야 지혜로서 종단의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단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며 취임법회의 봉행사를 하였다. 효강대종사는 취임법어에서 "이제 총지중은 우리나라에 국한 될 것이 아니고 세계로 뻗어나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시디피 우리 종명이 불교총지중입니다. 종조님은 이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한국에만 국한 할 수 없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뜻으로 종명도 불교총지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도약을 시작해야하

니다."며 총지중 종흥을 통한 세계화의 의지를 설했다. 대원 중앙총회의장은 추대사를 통해 "오늘 효강대종사님의 종령 추대는 총지중 종단만의 추대가 아니라 모든 불자들의 추대이며 더 나아가서는 시방세계 유정 무정 모든 만물들의 추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언제나 자엄한 법좌이며, 조금도 흐려질 수 없는 청정한 보좌인 것입니다."며 전 종도를 대표하여 효강대종사의 총지중 종령 추대를 부처님 전 고하였다. 이어 불교계를 대표해 진각종 총리원장 혜정 정사는 "제11대 총지중 종령에 추대된 효강대종사를 중심으로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정진해 종단이 발전하고 세계불교 발전에 총지중이 큰 역할을 해주길 서원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경인 지역 신정회 김은숙 회장은 교도들을 대표해 "오늘 종령 추대식을 계기로 영명하신 효강대종사님의 덕화와 지도력에 힘입어 전통과 혁신의 조화 위에서 밀교의 종흥을 위한 거대한 주춧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종령님의 취임을 교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범용융합을 기원했다. 마니합창단의 축하와 환향증정에 이어 창교가 제창으로 취임법회는 끝을 맺었다. 제11대 종령으로 추대된 효강대종사는 법장 원장종과 중앙교육원장, 제5대와 9대 총리원장과 제9대와 10대 종령에 이어 만장일치로 재추대 되었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동일본대지진 1주기 추모위령법요식 대표단 파견

한일 불교 문화교류회 2012년 제 1차 이사회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이하 교류회) 2012년 제 1차 이사회가 2월 13일 조계사 교육관 3층 교류회 사무실에서 봉행되었다. 불교총지중 총무부장 인선정사와 정산 교류회 이사장 등 주요 종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7차 한일불교여성 교류대회와 동일본대지진 1주기 추모위령법요식 참석의 건 등이 논의하고, 교류회 신도회 회장을 상임이사로 추진하였다.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는 일본 코후에서 3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대표단 20여명이 참가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전통음식체험과 3월 9일 가마쿠라에서 열리는 동일본대지진 1주기 추모위령법요식에도 동참한다. 교류회는 지난해 열린 동일본대지진 1주기 추모위령법요식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약 15명 내외의 교류회 스님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추모법요식은 지난해 5월 23일 일본 정토종 가마쿠라 광명사에서 열린 동일본 대지진 위령법요식의 1주기를 맞아 봉행된다. 김종열 기자

총기41년 총리원 정기사무감사 실시



총지중 사감원(사감원장 범상인 전수)은 총기41년 총리원 사무감사를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리원에서 진행하였다. 범상인 사감원장의 주제로 지방 정사, 지공 정사, 안성 정사, 범우 정사 등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리원의 지난해 수입 및 지출 결산사항, 종단 주요사업 결과 등 총리원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교훈 : 신의 · 성실 · 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불기 2556년 종단협의회 제48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 봉행

-유사단체 문제 적극 대처 및 정토종 신규 종단 가입 승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월 21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봉행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 및 총지종 인선 총무부장 등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으로 '유사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규정 신설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정관

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종단 및 유사단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분회 가입 종단의 간부가 유사 단체의 간부 및 임원으로 취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올해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결산 및 감사보고, 감사선임(기존 감사를 재선임), 정토종 신규종단 가입 승인, 기원법회 개최와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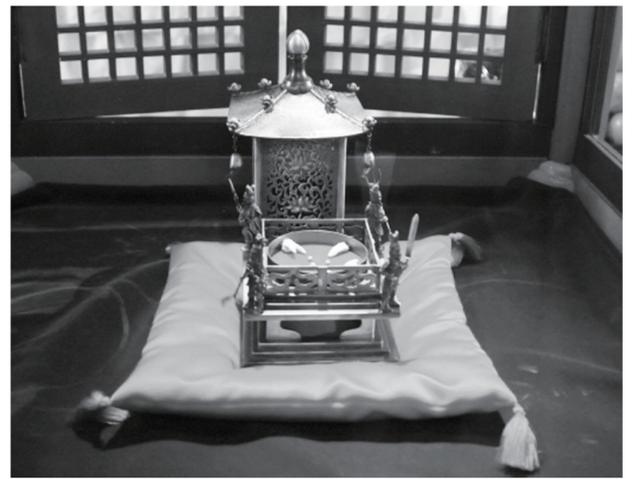
불교 교류 사업 참가 및 6월 11일부터 여수에서 열리는 WFB(세계불교도우회) 한국대회 개최 등을 논의 하였다. 특히 올해는 양대 총선으로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통령 및 정치권 초청 기원법회는 열리지 않기로 결의했다.

AW컨벤션센터=김종열 기자

가산불교대사림 대작불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대종사 49재 봉행

가산당 지관대종사 49재 법회가 2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었다. 49재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및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덕 스님들과 인공 태고종 총무원장,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바시 쇼겐스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부대중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명중을 시작으로 진행된 지관대종사 49재 법회는 행장소개, 지관대종사 육상법문에 이어 조계종 법전증정은 밀운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간절할 인연이 있으면 만덕(萬德)의 몸을 나눌 것이요 담적(湛寂)하고 여여(如如)하면 적정삼매(寂靜三昧)에 들 뿐이다"며 "종사가 이 땅에 남긴 삼장의 교화와 은혜는 천년에 깊고 교화는 만대에 빛날 것"이라고 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도사에서 향화(香花)를 올리는 이 시간의 깊은 뜻으로 남아 있는 중생의 심상과 불안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지혜로 승화되니, 인연의 마디를 또 하나 매듭하는 찰라에도 이 생의 인연자(因緣者)들은 서로가 보이는 감화의 묵언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며 대종사를 추도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회장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종교평화와 공존, 종단화합을 몸소 실천했던 이 시대의 대표적 학승이자 선지식이였다."며 지관 대종사를 회고하였다. 각계대표의 헌화에 이어 지관대종사 문도 대표인 세민스님은 "문도들이 화합

하고 더욱 정진하여 가산불교대사림 대작불사를 꼭 이루내겠다."고 참석한 대덕 스님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법회 이후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관대종사의 사리를 공개하고 진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사= 김종열 기자

중국 정부는 티베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 티베트 탄압 중단 촉구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들은 2월 21일 조계종 불교문화회관 2층 분과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티베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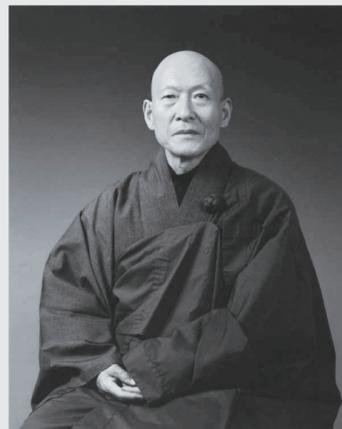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24명의 승려와 국민들이 소신공양하였고 현재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을 향해 발표와 무차별적인 구타

등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시위가 발생한 지역에 통신 수단을 끊고, 도로를 통제하며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 일동은 중국 정부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준엄한 사태로 규정하고, 세계인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과 한, 중, 일 불교대표단에게 결의문 채택과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위원장들은 향후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국대사관에 전달 할 예정이다. 향후 전불교계의 동참과 관심을 끌어내어 티베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종열 기자

어려운 세상,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깁니다.

-법정스님 2주기 추모법회, 사부대중 1,500여명 동참



법정 스님 2주기 추모법회가 2월 17일 김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되었다.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전 송광사 주지 현고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등과 순학규 전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조윤선 의원, 이계진 전 한나라당 의원,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및 '맑고 향기롭게' 관계자, 일반 신도 등 1천500여명이 동참했다.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생전 말씀에 따라 간소하면서도 차분하게 진행됐다. 추모 영상을 통해 참석한 사부대중들에게 생전 법문을 다시 전한 법정 스님은 "법구경에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은 근본이다. 사람은 걸림 없이 살아야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다. 걸림 없이 또 치우침 없이 마음을 써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추모 법문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향기롭게 나가자는 것"이라며 "맑고 향기롭게 살자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부처님의 은덕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라고 애도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스님께서 가시고 난 뒤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스님의 가르침이 더없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고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했다. 법정 스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기고, 2010년 3월 11일 김상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복남	1/27	10,000
개천사	전경택	1/30	20,000
개천사	이희권	2/1	10,000
개천사	무명씨	2/13	10,000
개천사	강순시	2/14	10,000
개천사	이승은	2/15	100,000
건화사	록경	2/20	10,000
건화사	법수연	2/20	10,000
관성사	황성미	1/30	10,000
관성사	박현숙	1/31	10,000
관음사	신만섭	2/23	10,000
기로	정법계	1/30	20,000
기로	대관	2/20	10,000
기로	대자행	2/20	10,000
기로	밀공정	2/20	10,000
기로	법수원	2/20	10,000
기로	법장화	2/20	10,000
기로	법지원	2/20	10,000
기로	불멸심	2/20	10,000

기로	사홍화	2/20	10,000
기로	상지화	2/20	10,000
기로	수중원	2/20	10,000
기로	총지화	2/20	10,000
단음사	천공	2/6	4,000
단음사	신경희	2/15	415,000
단음사	조영조	2/15	100,000
단음사	법연지	2/20	10,000
덕화사	하순옥	2/13	5,000
덕화사	시정	2/20	10,000
덕화사	원만원	2/20	10,000
만보사	최옥순	2/16	10,000
밀인사	정정희	1/31	5,000
밀인사	이희원	2/8	10,000
밀인사	이채원	2/11	10,000
밀인사	이연주	2/11	10,000
밀인사	이혜성	2/15	20,000
밀인사	복지원	2/24	10,000
백월사	한정훈	1/26	5,000

백월사	무명씨	2/17	10,000
백월사	김현중	2/20	10,000
벽룡사	양지현	1/30	10,000
벽룡사	양정현	1/30	10,000
벽룡사	무명씨	2/5	20,000
선립사	정복지	2/16	10,000
선립사	심지장	2/16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2/10	70,000
수인사	장영택	2/1	50,000
수인사	황보기문	2/16	20,000
승천사	원봉	2/20	10,000
승천사	지선행	2/20	10,000
시법사	진여행	2/17	10,000
실보사	송희준	1/30	10,000
실보사	조순애	2/14	110,000
실지사	서남교	2/2	10,000
실지사	송우섭	2/9	5,000
실지사	정우석	2/17	10,000
정각사	구정희	2/15	20,000

정각사	김문수	2/16	10,000
지인사	허성동	2/15	30,000
지인사	승효계	2/20	10,000
화음사	송영근	2/10	30,000
화음사	정진순	2/14	20,000
흥국사	지정	2/20	20,000
	안효정	1/27	20,000
	이혜원	1/30	5,000
	무명씨	2/3	10,000
	최순전	2/15	20,000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월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총기41년 동해중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 봉행 총지인의 자부심으로 앞날에 부처님의 가지가 원만하기를



축하했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회고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들이 지난 3년간 인생의 통장에 차곡차곡 배움의 성과를 저금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찾아 쓸 수는 없지만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큰 자산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며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영예의 이사장 상은 박정훈군이 수상하였고, 3학년2반 김동현 외 3명이 불교총지종 장학금을 받았고, 총 21명의 졸업생에게 동창회 장학금 등이 수여되었다. 졸업식에 앞서 정년을 맞아 퇴임하는 김명진 선생님과 김춘삼 선생님의 퇴임식도 함께 열렸다. 동해중학교는 1968년 3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제42회 졸업생 199명을 더해 총 졸업생 16,966명이 졸업한 전국 최고의 명문 중립학교이다.

3월 2일에는 제45회 입학식에서는 총동창회장 이진복 국회의원과 입학생 학부모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총지종 총리원장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빛나는 전통을 가진 동해중학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며 새로이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번 입학식은 189명의 학생들은 입학식을 통해 총지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내외 귀빈들과 부처님 전에 서원하였다. 동해중=김종열 기자

총기41년 총립 동해중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이 해오름관에서 봉행되었다. 2월 21일 졸업식에는 총지종 총립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총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김진도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및 학부모 내빈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회고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들이 지난 3년간 인생의 통장에 차곡차곡 배움의 성과를 저금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찾아 쓸 수는 없지만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큰 자산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며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영예의 이사장 상은 박정훈군이 수상하였고, 3학년2반 김동현 외 3명이 불교총지종 장학금을

지성 총리원장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다' 출연

부산불자들에게 총지종 신년 계획을 알리다.

지성 총리원장은 2월 9일 부산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하였다. '무명을 밝히고'는 부산, 경남의 불교계 소식과 각종 정보, 불자들의 신생활을 초대석, 리포터 취재 등의 코너로 청취자들에게 다가가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지은아 아나운서의 원숙한 진행으로 시작된 녹음에서, 먼저 지난 한해 비약적인 발전을 한 총지종의 성과를 되짚어 보았다. 이어 부산 지역 불자들에게 총지종의 교리와 중립학교



동해 중학교를 소개하고, 올해의 주요 중단 행사 및 교화 계획들을 알리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성

총리원장은 방송에서 “그 동안 부산 지역 불자들에게 총지종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조금은 소원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 올해부터는 가까이 있는 친근한 불교로 부산 불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며 부산 지역에서 불교 총지종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방송은 부산불교방송 FM 89.9MHz에서 2월 17일 오후 5시 5분부터 40분까지 방송되었다. 부산 = 김종열 기자

바라밀공부방 따뜻한 후원 이어져



부산 바라밀 지역아동센터에 임진년을 맞아 따뜻한 온정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5대의 최신형 컴퓨터를

지원해 공부방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도왔다. 7년 전 개원 당시 설치된 학습용 컴퓨터는 성능 저하로 원활한 학습지원에 애로가 있었다. 지역 아동센터가 위치한 부산 정각사에서 단월회(회장 김광원, 총무 탁상달) 자비회(회장 000, 총무 이영순) 등 실행단체를 중심으로 학용품 및 백미를 후원했다. 새학기를 맞은 공부방 학생들의 학용품과 총19세대에 전달된 백미는 나눔의 보시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19일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항상 가족같이 걱정해 주시는 정각사 정인화 전수님과 부산.경남 지회 신인록 회장님, 정각사 신정희 류길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세배를 드리는 자리를 가졌다. 정인화 전수님은 새해의 덕담으로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항상 건강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며 항상 밝고 명랑한 생활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바라밀 공부방 학생들은 따뜻한 후원과 온정으로 한해의 문을 열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김수경 교무

벽룡사 산악회 덕유산 눈꽃 정상 등정



임진년 벽룡사산악회 첫 코스는 덕유산 눈꽃 여행을 다녀왔다. 전라북도 무주에 위치한 덕유산은 높이 1614m로 거대한 능선이 산 주변으로 웅장하게 뻗어 있는 남한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이다. 특히 겨울은 덕유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빼어난 설경을 자랑하며 거친 바람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벽룡사(주교 법일 정사)산악회 회원들은 이종호 회장의 안내에 따라 무주 스키장에서 관광 곤돌라를 타고 해발 1522m 설천봉에 오른 뒤 정상인 향적봉에 오

수 있었다. 곤돌라에서 내려다보는 덕유산의 멋진 설경을 감상하면서 정상까지 쉽게 올라, 연세 많은 보살님들과 함께 한 산행의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토요일 주말이라 스키장 인파와 등산객 인파가 더해져 4500번째로 입장 하였지만 정상에서 만날 아름다운 설경 덕분에 기다림마저도 즐거움이 되었다. 덕유산 정상에 올라 사방으로 뻗은 아름다운 능선들은, 마치 하얀 빛으로 머리를 만지다 그만 깜빡하고 놓아두고 간 모양이다. 주변으로 펼쳐진 마이산과 지리산, 가야산, 적상산, 계룡산, 무등산을 두루고, 발 아래 놓인 순백색의 눈꽃이 고목과 어우러진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 곳이 덕유산 향적봉이다. 일행은 향적봉정상에서 국유윤창과 총지종 교세발전, 일체교도 가정소원 성취를 서원하며 한해의 산행을 시작하였다.

벽룡사= 통신원 양재범

영천 단음사 '단월회' 결성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복지재단 기탁

영천 단음사(주교 지현 전수)는 2월 21일 서원당에서 각자님들의 신년모임 '단월회'를 결성했다. 기로스승이신 범공정사, 우승정사를 모시고 박동홍 각자를 중심으로 총 12명이 참석했다. 단음사 '단월회'는 이날 매월 한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교도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각종 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봉사 단체로 키우기로 했다. 단음사 자비회는 지난 한해동안 시행한 동전 모이기와 12월 24일 장교절을 기념하여 열린 율곡이에서 모금된 소정의 금액을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 기탁했다. 단음사에서는 올해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예정이다. 단음사= 통신원 권순복

부산 정각사 새봄맞이 환경개선작업 한창



부산 정각사(주교 대원 정사)는 임진년 새봄을 맞아 2월 13일부터 서원당을 시작으로 리모델링과 도색 작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교도들에게 불편했던 시설 일부를 개선하고, 15년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기존의 서원당 계단의 벽면등이 단색으로 단조로움을 준 반면, 깨끗하고 산뜻한 파스텔 톤 연노랑, 진노랑, 연분홍,

진분홍으로 화사하게 복단장을 하고 있다. 또한 총리원에서는 서원당의 높은 계단으로 불편을 겪은 교도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엘리베이터 공사를 약속했다. 그동안 서원했던 정각사 환경개선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소식은 정각사 신정회를 비롯한 모든 교도들에게 따뜻한 봄 선물이 되었다.

정각사=이상록 통신원

총기41년 신입 종무원 직무교육 입제

교리 및 직무관련 프로그램 이수



총기41년 신입 종무원 직무교육 입제 불공이 2월 20일 총지사에서 범등 주교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 신입 종무원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오전에는 49일 불공과 오후에는 총지종 교리등 불교일반과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받았다. 이번 공개 채용에서 합격한 주황, 황의중, 조경아, 조영아씨는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정식 종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총리원= 장동욱 계장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드다르마**

불교총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교양지

위드다르마는 진리의 말씨름을 울곧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 통권 제101호
● 발행인 지성
● 편집 위드다르마 편집부

Contents 3. 2012

수행이야기 새로운 변화의 추구 _성모대사
불교이야기 불교는 자비와 평화의 종교 _화평 정사
[테마기획]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스승과 도반 _보각스님
진언수행의 길 _현화스님 및 훈원장공 _현화스님
[기획연재] 신자들의 안타까운 최후 _원철스님
만다라 세상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자 _지현 정사
마음의 동북 _세우산何者는 _경하선사
행복찾기 동도사에서 그와 그녀들을 만나다 _보현전수
차 향기 속으로 오해 _보경스님
풍경소리 삶의 문제
배알리 경전읽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진리의 길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_보경
아주 특별한 선을 커다란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_도리리리
이달의 경전 본성경 _보경
지혜의 트랙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_경하
디딤돌 미소를 지어 보세요 _하야시 기루조
함께 보는 불교미술 _인간문화재 단청장 단봉스님 _보현부
산책 지금의 불 _우학스님
건강달림 _불교 건강을 지키는 _왕성연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선 여성들 _보현부
길잡이 담긴 이야기 배움에는 때가 없다 _보현부
건강한 밥상 건강을 지키는 불의 전령사 _속흥합법
우리말 바꾸기 _고집스님, 정직교

미소를 지어 보세요

언젠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 부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열심히 자동차 바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동차 바퀴를 볼려고 한참을 평평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평크가 났나요?" 청년은 부인을 한번 훑듯 쳐다보더니 통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보면 몰라요? 당신 바보야?" "평크가 났나요?" 라는 말에는 '힘드시겠어요. 걱정이겠군요.' 라는 뜻이 담겨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그 부인이 진심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부인의 '정말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 라는 솔직한 토로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진심을 그런 식으로 묵살 하다니...

나는 가끔 교통안전현황에 강서로 초빙되어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잠시 시간을 내서 사물레이션을 해보곤 합니다. 스크린을 쳐다보지만 해도 실제 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첨단 기기 앞에서만 가면 캔스레 가슴이 설렌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속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먼저 프로그램에 따라 넓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쪽에서 차가 튀어나와 내가 달리는 차선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나는 곧 양보해서 내 앞에 끼워 주었습니다.

- 본문 더딤돌 중에서

달고 심은 소중한 재민을 보내주세요 머리본의 이야기가 벌써 향기가 되어 전해집니다.

보내실 곳: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종 위드다르마 편집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림을 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불교의 선정 ⑦

수식관 수식관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관법

수식관을 닦음으로써 아라한의 경지까지도



화령 (중앙교육원장)

수식관을 닦는 것에 의하여 몸과 마음이 바르게 된 상태에서 가만히 마음을 붙들어 매고 탐욕과 성냄, 정신이 혼미한 혼침과 수면을 경계하고 마음이 들뜨는 도거약작과 진리를 의심하는 마음인 오개의 번뇌를 멸할

수 있다. 수식관의 목적이 숨을 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호흡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함에 의하여 이러한 번뇌를 끊기 위한 것이 수식관의 궁극적 목적이다. 호흡의 관찰은 숨이 코끝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호흡에 따라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관을 효과적으로 닦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정돈함으로써 탐욕과 번뇌를 제거하는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수식관을 닦음으로써 오개의 번뇌를 멸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오개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수식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닦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수식관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단계에서 들숨과 날숨을 쫓는 것이 정념인가, 아니면 마음이 들숨과 날숨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념인가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숨을 들이 쉴 때는 코끝에서 시작해서 배꼽에서 끝나며 숨을 내 쉴 때는 배꼽에서 시작해서 코끝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상상한다. 물론 실제로 숨이 배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 코에서 배꼽에 이르는 호흡의 공간이 긴 것인가 짧은 것인가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진다.

또 다른 방법은 숨을 들이 쉴 때 배가 나오고 내 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초보자에게는 배의 들어가고 나옴을 관찰하는 것이 좀 더 뚜렷하고 관찰하기가 좋을 수가 있지만 어느 방법을 택하는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수식관이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이런 수행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수행법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삼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몸의 행위를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을 통해 깨닫고 기쁨, 즐거움 등의 마음의 기쁨과 평정, 무상, 무욕 등에 대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이 수식관만 잘 닦아도 큰 공덕을 얻는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나만나염을 잘 닦으면 큰 결과와 큰 복과 이익을 얻는다.

만일 비구가 탐욕과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각과 관이 훌륭해지고 욕계의 악을 여인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초선을 완전히 성취하여 머물고자 하면, 그는 안나만나염을 닦아야 한다.

이처럼 수식관은 욕계의 악을 여의고 초선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이어서 초선뿐만 아니라 제이선, 제삼선, 제사선을 얻으며, 무색계 사선에까지도 이르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는 물론, 마침내 누진지를 포함한 육신통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수식관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수행이 되지 않고 어떤 특수한 수행을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

참선을 하던 밀교의 관법을 행하던 이러한 수식관의 기초가 닦여진 이후에야 다른 모든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밀교의 가장 대표적인 관법인 아자관도 수식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말해온 오정심관 가운데에서 부정관과 수식관은 초심자들이 행하는 입문 단계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식관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모든 관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행방법이다.

물론, 수식관을 통하여 경지가 깊어지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고의 깨달음까지도 얻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오정심관 가운데에서 네 번째의 계차별관을 제외하고 대신에 염불관(念佛觀)이라는 것을 더하여 오문선(五門禪)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회로 미룬다.



들숨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잡아매어 잘 공부하고, 날숨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잡아매어 잘 공부한다. 긴 숨이나 짧은 숨 등 몸에 들어오는 모든 숨을 깨달아 알고 잘 공부하며, 몸에서 나가는 모든 숨을 깨달아 알고 잘 공부한다.

호흡은 정념이 바탕이 된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 정념이 시작된다. 이

진리의 여율

보살의 열 가지 행

공덕립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번뇌를 물리치는 삼매에 드니, 시방세계에 계신 무수한 부처님들이 공덕립보살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착하다, 그대가 번뇌를 물리치는 삼매에 들었구나. 이것은 시방세계의 여래들이 그대에게 가피(加被)하려는 것이다.

여래가 예전부터 세운 서원의 힘과 위신력과 모든 보살의 선행의 힘이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 법을 설하게 하려는 것이다.

보살이 열 가지 행(行)을 일으키는 것은 여래의 지혜를 늘리기 위해서이고, 법계(法界)에 깊이 들게 하려는 것이며, 중생계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이

하는 일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또 한량없는 방편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고, 온갖 지혜의 성질을 거두어 지니려는 것이며, 모든 법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모든 근기를 알게 하려는 것이며, 온갖 법을 가지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는 여래의 위신력을 받아 이 법을 설하라."

이때 모든 여래는 공덕립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집착없는 지혜, 끊이지 않는 지혜, 스승 없는 지혜, 어리석지않는 지혜, 다르지 않는 지혜, 허물이 없는 지혜, 한량없는 지혜, 이길 이 없는 지혜, 게으름 없는 지혜, 빼앗기지않는 지혜를 주었다.

이 삼매의 힘은 그와 같은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방세계의 여래가 각기 오른손으로 공덕

고, 들어가는 데에 걸림이 없게 하려는 것이며,

립보살의 이마를 쓰디듬자

그는 삼매에서 나와 모든 보살에게 법을 설했다.

"여러 불자들, 보살의 행은 넓고 커서 법계처럼 헤아릴 수 없고 허공처럼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행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보살에게는 삼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 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행, 이롭게 하는 행, 어기지 않는 행, 굽히지 않는 행, 어리석음과 산란을 떠나는 행, 잘 나타나는 행, 집착 없는 행, 얻기 어려운 행, 법을 잘 아는 행, 진실한 행입니다."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문수보살이 진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은 데 이 가르침을 듣는 중생들은 어찌서 한결같이 번뇌를 끊을 수 없습니까?"

진수보살이 대답했다.

"중생들 가운데에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어리석음을 없애어 해탈하려고 한다면 굳은 결심으로 용맹 정진해야 합니다.

나무가 젖어 있으면 약한 불은 꺼지고 말듯이 가르침을 들었어도 게으른 자는 그와 같습니다. 불을 지필 때에 태우다 말다 하면 마침내는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자도 그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서는 달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한 마음 한 지혜

문수보살이 현수(賢首)보살에게 물었다.

"모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일승(一乘)에 의해 생사를 초월하셨는데 모든 불국토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정이 각기 다릅니다. 즉 세계와 중생과 교화와 수명과 광명과 신통력 등 모두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을 갖추지 않으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수보살은 대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있는 것이고 한 법뿐입니다.

부처님은 한 길에 의해 생사를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몸은 하나의 법신이고 그 마음과 지혜도 한 마음이고 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따라 설법과 교화도 다른 것입니다. 또 모든 불국토는 평등하지만 중생이 지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힘은 자유 자재하므로 중생의 업과 과보에 따라 각기 진실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엄경 심행품>

정리= 최영아 위원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 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경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지상절법

오세대 제도는 진언행자의 사명

밀인사 원당 정사



우리는 자성일 대중 불공 시에 제일 먼저 다음의 실천서원을 합송합니다.

‘인욕과 하심으로 진애심과 원망심을 없애고 윤회선순과 자비지혜로써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과 오세대 제도에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실천서원은 총지종 진언행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서원은 불자로서 닦아야 할 수행덕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불자로서 지나야 할 기본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천서원을 합송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 실천서원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세대 제도에 용맹정진하겠다는 대목에서는 불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마음깊이 느끼게 합니다.

오세대 제도는 나 한 사람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전법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세대 제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표로 하는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수행의 길입니다. 자리이타

보살행을 함으로써 중생제도에 정진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사명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고 얼마 후 부처님의 제자들이 녹야원의 끈단냐등 다섯 수행자를 포함하여 60명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함께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될 문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전도선언(傳道宣言)입니다. 이 전도선언은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언의 하나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처음에는 직면한 생노병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수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진리를 모르고 생노병사의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법을 전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고행하시던 때 함께 수행하던 끈단냐등 다섯 수행자를 대상으로 초전법륜을 굴리신 것입니다. 초전법륜 후 제자들이 60여명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하러 나아가라고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전도선언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한분을 떠나서 온 세상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담긴 전법정신을 계승하여 전법을 위해 씩없이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세대에 퍼지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부처님의 법을 전해준 전법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오늘 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머나먼 길을 걸어서 혹은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가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적떼를 만나거나 사나운 맹수와 독충을 만나는 목숨을 건 전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녹야원으로 가서 끈단냐등 다섯 수행자를 제도하신 것을 시작으로 전법을 시작하셨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 진언행자도 오세대 제도를 목표로 법륜을 굴리겠다는 전도의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위하여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 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정법수호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전법의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생을 길 위에서 보내는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다른 이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를 보시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조법계에서도 오세대 제도를 진언행자들에게 실천사항으로 내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서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써 보시한 복덕도 매우 크지만 경중의 사구계 만이라도 받아 지녀 남을 위해 실천한다면 그 복덕은 더욱 크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재보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법보시는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줌으로써 중생들의 생각을 바르게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미혹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은 가장 수승한 공덕인 법보시가 됩니다.

전법을 통한 법보시는 나와 남을 모두 복되고 이롭게 합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탐진치의 어리석은 번뇌의 속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세상이 되는 불국토 건설을 이루는 것입니다.

밀교연구회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2)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습니다. 신(神)들이 불교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를 판테온이라고 하지만, 힌두화된 불교를 일러서 탄트라불교라고 합니다.

지난호에서 오불(五佛)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불은 대장계만다라의 오불과 금강계만다라의 오불이 있습니다. 대장계만다라의 오불은 비로자나불을 위시하여 보당여래, 개부화왕여래, 무량수여래, 천고뇌음여래의 오불(五佛)이 있고, 금강계만다라의 경우는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의 오불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공능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불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비로자나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교연구소 연구원/ 법전사 주교 법경 정사)

존재했으니 굳이 다른 불상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불교를 범중심(法中心)의 불교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즉 법(法)이 곧 진리였으니 법의 불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이었고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이 법이자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가장 온전하게 전해졌던 시기가 하여 이를 ‘근본불교(根本佛敎)’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 불교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견(異見)이 생기면서 여러 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를 ‘부파불교(部派佛敎)’라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불교라 하여 ‘아비달마불교’라고 하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여 ‘부파불교’라 한 것입니다.

‘아비’는 ‘~에 대하여’라는 뜻이고, ‘달마(다르마)’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라 하였으니, ‘부처님의 법에 대하여’ 이론이 발생하여 부파를 일으킨 불교’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당시의 불교를 일러 소승불교라고도 합니다. 소승이라는 말은 이후에 나타난 대승불교에서 상대하여 지칭한 말로서, 부파불교를 편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이 소승불교는 출가자가 중심이 된 불교로서 오로지 혼자 닦아 아라한과에 도달하겠다는 불교입니다. 그러나 이후 불교는 모두가 함께 닦아서 함께 부처님이 되자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재가자 중심의 불교, 자리이타의 대승보살도 사상의 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가자 중심의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재가자들의 신앙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재가자들의 신앙대상은 부처님의 말씀도 물론 포함되었지만 탐나 불상 등 구체적인 신앙대상물이 있게 되고 일정 장소와 공간에서 법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양물이나 관리자가 생기게 되었으니 재가불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불교는 앞의 법(法) 중심의 불교에 대비하여 불(佛) 중심의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다불신앙(多佛信仰)의 불교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불(佛)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등장하게 된 불교는 당시의 힌두교와 접합하면서 힌두교의 수많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불교(밀교)의 출현입니다.

밀교에 와서 불보살의 존상(尊像)들이 더욱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장계, 금강계만다라 속에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불보살과 제존(諸尊)들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말씀, 법을 육신에 비유하여 법신(法身)이라 하였습니다. 진리, 말씀이 곧 살아있는 부처님이므로 이를 인격화(人格化)하여 ‘법신(法身)’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우주 삼라만상과 일체의 진리’를 일러 ‘법신불(法身佛)’이라 합니다. 흔히 ‘진리의 당체이신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은 유행무형의 우주 삼라만상과 진리 그자체이므로 형상이 있고 없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자체가 부처님이자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총지종에서 불상을 굳이 모시지 않는 것은 ‘진리’의 법신(法身)은 형상의 유무에 있지 않으므로 형상불을 모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신다하여도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법신불은 곧 비로자나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범어로 Vairocana(바이로차나)라 하는데, ‘광명변조(光明遍照)’의 뜻입니다. ‘광명변조(光明遍照)’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비춘다. 우주법계에 가득히 충만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총지종 종단에서 주존(主尊)으로 삼고 있는 법신 비로자나불의 소의경(所依經)은 『대비로자나상불신변가사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입니다. 일명 『대일경(大日經)』이라 합니다. 대일(大日)이란 바로 광명변조(光明遍照)라는 뜻에서 나왔으며, 이 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선무외 삼장(善無外三藏)이 『대일경소(大日經疏)』에서 처음으로 이 대일(大日)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비로자나불을 대일(大日)이라고 한 것은 태양과 같은 덕성(德性)을 지녔기에 대일이라 불렀고, 비로자나불의 공능(功能) 또한 태양과 닮았기에 비로자나를 대일이라 한 것입니다. 실제로 태양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내리치는 곳의 그반대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로자나는 실제 태양의

상위에 있습니다. 즉 비로자나는 태양 보다 더 밝고 밝아서, 어두운 곳도 한 군데 남기지 않고 널리 두루두루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부처님입니다. 즉 어려운 이웃을 모두 비추어주고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밝고 환한 빛으로 감싸안은 부처님이십니다. 차별과 분별이 없는 참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우르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진리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르침을 당체설법(當體說法), 당체법문(當體法門)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화려하게 장식됩니다. 서원당 정면의 오른쪽에 봉안되어 있는 대장계만다라의 제일 중앙에 있는 부처님이 비로자나부처님입니다. 황금(黃金)의 색신(色身)으로 오불(五佛)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들어진 가사를 걸치고 보배연꽃 위에 앉아 계십니다. 광배(光背)는 붉은 태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계정인

비로자나부처님의 덕성(德性)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광배는 다시 총지종의 본존(本尊) 뒤의 후불탱화로도 모셔져 있습니다. 본존 뒤의 후불탱화는 바로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배(光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대장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불

손모양(결인結印)은 ‘두 손을 위아래로 서로 포개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법계정인(法界定印)이라 합니다. 선정에 든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선정인(禪定印)’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로자나부처님의 진언은 ‘아비라함삼’입니다.

서원당 왼쪽에 봉안된 금강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부처님은 조금 다릅니다. ‘널리 비춘다’는 변조(遍照)의 원래의 뜻 이외에 ‘장애가 없다’는 뜻의 무장(無障)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태장계와는 달리 존상(尊像)이 백색으로 되어 있고 손모양은 지권인(智拳印)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에서 진호국가불공을 올릴때 취하는 결인이 바로 이 지권인(智拳印)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는데 지권인을 하고서 수호국계주진언 ‘옴훤야호사’를 독송하고 있지요.

이 지권인이 바로 금강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부처님의 결인입니다. 이 지권인은 진각종에서 ‘옴마니반메훤’을 외우면서 행하고 결인이기도 하지요. 지권인을 하고서 지송하는 진언은 ‘옴 바즈라 닛트 밤’입니다. 금강계만다라의



지권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입니다. ‘바즈라’는 금강(金剛)을 말하고, ‘다트’는 우주법계의 계(界)를 의미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종자가 바로 ‘바’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칭하여서 ‘옴 바즈라 닛트 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진언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도불공이나



대장계만다라의 비로자나불

동참불공을 올릴때마다 지송하고 있는 ‘광명진언’도 바로 비로자나부처님의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갖추어서 말하면 ‘불공견색비로자나불대관정광진언(不空絹索毘盧遮那佛大灌頂光眞言)’이라고 합니다. 이를 줄여서 ‘광명진언’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비로자나총귀진언’이라는 다라니도 있습니다. 꽤 긴 진언인데, 이 진언은 일반 현교에서 일종의 공덕경(功德經)으로 여기고 독송하고 있습니다. 맨 앞의 ‘오호지리’를 한 번 외우면 화엄경 50권을 독송한 공덕이 있고, 그다음의 ‘바라지리’를 아우면 화엄경 80권을 독송한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진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고 본래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은 다시 여러 부처님으로 분화(分化)를 합니다. 그것이 사불(四佛)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로자나부처님의 또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불(四佛)입니다. 사불은 다음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기획
불교민속=산신각 탐방

범어사와 고당 할매

사원 수호의 의지를 담아 금정산을 지키는 고당 할매



부산의 주산 금정산

부산이 고향인 기자는 어려서부터 금정산과 떨어질 수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본 제일 큰절도 금정산 지락의 범어사였고, 얼마 전 합가를 하신 어머니의 거처도 바로 금정산 아래 남산동이었다.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한때는 동물원과 케이볼가를 갖춘 공원이었던 금강공원 역시 금정산 아래에 있다. 부산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금정산과 연관을 맺고 살았고, 살아가고 있다.

태백산맥이 남으로 뻗어 내달리다 한반도 동남단 바닷가에 이르러 우뚝 솟은 봉우리를 형성한다. 해발 801미터부산의 주산 금정산이다. 최고봉은 고당봉이고 북쪽으로 장군봉, 계명봉 남으로 원효봉, 의상봉, 파리봉, 상계봉들이 백양산으로 이어진다.

금정산과 범어사는 그 이름의 유래부터 같이 한다.〈삼국유사〉에는 금정범어(金井梵魚)로 표기되어 있어 신라시대 이전부터 연관 지어 불린 것으로 본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산 이름의 유래에 대해 '동래현 북쪽 20리에 금정산이 있고, 산 정상에 세길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우물이 있다. 돌레가 10여척이요 깊이가 7척 정도다. 물은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전설로는 한 마리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 하여, 금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로 인하여 절을 짓고 범어사라 부른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지금도 고당봉에서 내려다 본 금정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푸른 샘물이 그득하다.

범어사와 고당 할매

금정산 고당봉 아래에 자리한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더

불어 영남 3대 사찰 중의 하나다. 서기678년 신라 문무왕대의 상대사가 해동 화엄십찰중의 하나로 창건하였다. 일찍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승들의 수행처로 의상대사, 원효대사, 표훈대덕 으로부터 근세의 경채, 홍성, 한용운, 통산스님에 이르는 선맥(禪脈)의 총본산이다. 1950년대에는 범어사 조실로 주석하던 통산스님의 주도로 불교정화운동을 편 역사적인 사찰이다. 보물 제 434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한 수많은 성보문화재가 있다.

범어사에는 고당봉과 고당 할매에 대한 전설이 내려온다. 먼저 금정구룡이 지명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고당봉은 고당(高幢)과 고당(姑堂) 두 가지의 한자어가 병존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산신의 대부분은 여신이었던. 따라서 금정산 고당봉에도 할미신의 전설이 내려오므로 할미 고(姑)자와 집 당(堂)자를 써 고당봉이라 확정하고 표석을 건립했다. 그럼 할미 신에 대한 전설은 무엇일까? 이 또한 두 가지로 전해오는데 하나는 하늘의 신선 할미가 고당봉에 내려와 자리를 잡고 금정산의 산신이 되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범어사와 관련된 설화로 밀양 사람 박씨 보살에 관한 이야기다. 박 보살은 일찍이 결혼하였으나 실패하고, 불가에 귀의해 범어사 화주 보살의 역할을 하였다. 박 보살은 절의 대소사만이 아니라 살림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불법을 외호하는 삶을 살았다. "스님, 제가 죽으면 화장하여 금정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뿌려 주십시오. 그 봉우리에 작은 집을 짓고 정월 보름과 단오날에 제를 지내 주시면 높은 곳에서 범어사를 영원히 지키겠습니다."며 마지막 순간 까지도 범어사를 걱정하는 불심을 보였다. 큰스님은 유언대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산신각을 짓고 이름을 할미 고(姑)자와 집 당(堂)자를 써 고당이라 불렀다. 이때부터 산신각이 위치한 봉우리를 고당봉이라 불렀다는 설화다. 그러나 한때 젊은 스님이 당제를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집을

훼손했는데, 그 뒤로 재앙이 끊이지 않아 다시 고모당을 고쳐지었다는 얘기도 전한다. 지금은 고당봉 큰 바위 아래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1평 남짓한 작은 당집으로 존재한다. 당집 안에는 고모할미의 산신도가 걸려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산왕대신의 위패와 고모령신 위패가 나란히 놓여있다. 지금도 민간 무속 신앙인과 이곳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는다.

범어사의 특이한 공간 활용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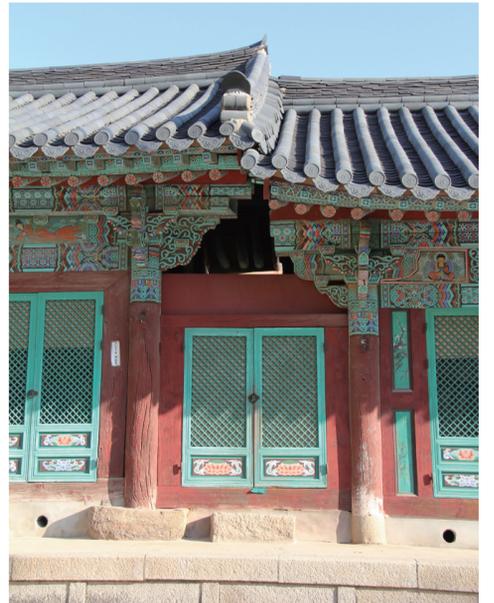
범어사의 가람배치는 산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배치한 선조들의 지혜가 스며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서쪽으로地藏전과 팔상, 독성, 나한전이 배치되었고,地藏전 뒤편 큰 바위에 산령각을 지었다. 서편으로는 관음전을 두었고, 석축 아래 남북으로 비로전과 미륵전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산령각에는 고모할미가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산신의 모습을 한 산신상이 봉안되어있다. 고당 할미의 전설을 사찰내로는 듣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범어사 사찰 건축 중 한번 눈여겨 볼 특이한 건물이 있다. 한채의 건물에 나란히 배치된 팔상전, 독성전, 나한전이다. 원래는 팔상전과 나한전이 독립된 건물이었다. 그 중간에는 천태문이라는 출입문이 있었다. 1905년에 중수를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데, 가운데 독성전은 1칸을 사용하는 구조로 문틀을 반원형으로 만든 독특한 모습이다. 원래 두채의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보였는데, 중수 하는 과정에서 두 건물을 이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듯하다.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이어 새로운 건물로 탄생시킨 대목장의 기지에 감탄 할 뿐이다. 또 하나는 비로전과 미륵전 두 전각의 사이다. 원래는 처마사이로 떨어져 있어야 할 공간에 문이 두짝 달려있다.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범어사를 거쳐 간 대목장들은 사원의 작은 빈틈도 조화롭게 꾸미는 혜안을 가졌던 것 같다. 지금은 보례주 복원 공사가 한창이라 대웅전 앞 마당이 어수선하지만 복원이 완료 되면 예전의 오밀 조밀 하지만 당당한 가람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전국 제일의 불교 도시 부산

불교계 기자라면 누구나 부산 불자들의 놀라운 신심에 감탄을 자아낸다.

기자가 H불교신문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범어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H불교신문과 범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설선대법회 임제식 날이었다. 초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 5일 부산에는 100여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 지역의 특성상 많은 눈이 내리면 도시의 교통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된다. 하지만 폭설 속에서도 3,000여명의 불자들이 선사의 사자후를 듣기위해 범어사로 모여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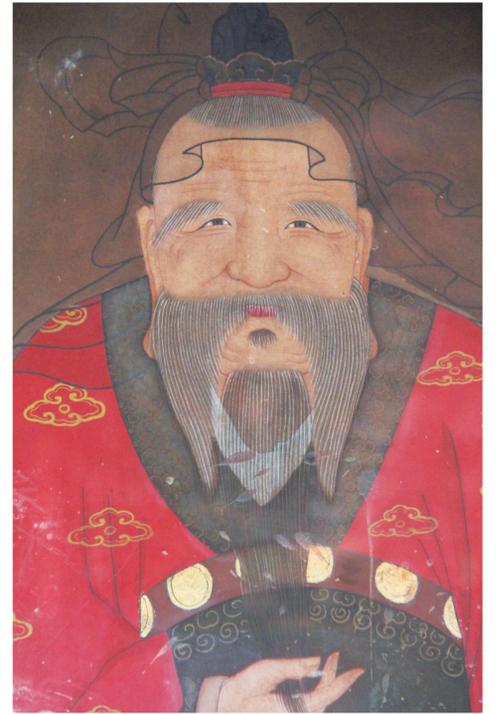
눈이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부산지역 불자들의 웅맹정전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이후



법회는 매주 토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임제식의 불자들이 회향식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는 아름다운 현상이 지금도 생생하다.

요즘은 불교는 대형화의 길을 가고 있다. 어느 사찰의 신도가 얼마라더라, 방생법회에 버스가 몇 대 동원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 진다. 잘 못 방향을 정하면 이웃종교가 범했던 우를 우리도 격을까 걱정되는 마음은 떨칠 수가 없다.

부산 금정산 범어사=김종열 기자



“편집위원이 가다”

불지종찰 통도사

부산. 경남 통신원 편

지난해 11월 ‘총지정보’ 전국 통신원 워크숍에서 토의 결정한 ‘편집위원이 가다’ 부산. 경남 편을 2월 8일 양산 통도사 일원에서 취재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했다. 부산. 경남 지역 통신원들과 멀리 서울에서 지역 통신원들과 함께하고자 4명의 편집위원과 경북 영천 단음사 권순복 통신원도 참석하여 한바탕 취재 경쟁을 펼쳤다.



인조 27년 서기 1649년 제작되었다. 모시에 배접하여 석가모니 영산회상도를 그렸다. 결가부좌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교화성중, 대신, 사천왕 등을 생동감있게 표현했다. 1997년 문화재청은 보물 제 1258호로 지정했다. 일층 전시실은 통도사 역사 유물관이다. 통도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646년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 가사, 대장경을 금강계단에 봉안하고 창건한 사찰이다. 통도사라는 이름은 승려가 되고자하는 출가자들이 모두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고 득도하거나, 법을 깨달아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뜻과 통도산을 둘러싼 산의 형세가 인도의 영축산의 모습과 통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전시실은 통도사의 역사와 전래 유물을 전시하여 관람자들에게 통도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층으로 올라가니



수는 80여동에 이른다. 통도사 전각을 유심히 살펴보다보면 건물 지붕아래 평방위에 작은 항아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위원들은 이항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담아두었을까? 왜 올려 두었을까? 궁금했다. 모두들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 다녔다. 항아리의 비밀은 소금 단지였다. 화재를 예방하기위해 소금을 올려 두었다 한다. 소금과 화재 예방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취재 결과는 소금은 거대한 바닷물을 상징한다. 바닷물의 거대한 위력으로 화재를 막으려는 의도로 단지를 올려 두었던 것이다. 불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바닷물이나 소금을 항아리에 담아 묻는 풍습이 있었다. 해인사의 경우에는 절과 마주보는 매화산 남산 제일봉 꼭대기에 소금단지를 묻고 화마의 기운을 누른다. 소금은 그 특성과 색깔에 주술적인 힘을 부여하여 민간신앙에서 자주 등장한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와 변질을 막듯이 민간에서는 제액, 정화, 축귀용으로 소금을 사용한다.

서운암 된장 이야기

통도사는 20개의 산내 암자를 가지고 있다. 암자마다 나름대로 특별한 향기를 품고 있다. 위원들은 서운암을 참배하기로 하고, 차랑에 올랐다. 서운암은 해마다 봄이면 들꽃축제로 유명하다. 서운암 너른 들에 가득 피어난 들꽃들의 향기는 겨울이라 찾을 수 없었다. 위원들을 맞은 것은 나란히 줄지어 늘어진 항아리였다. 서운암은 성파스님의 원력이 아니면 오늘의 모습을 갖출 수 없었다. 성파스님은 서운암을 중창하고, 85년부터 5년간 도자 3,000불을 조성 봉안했다. 심육만도자대장경의 대불사를 1991년 6월에 시작하여 2000년 9월 완성하였다. 사라졌던 전통 쪽 염색을 재현하고, 3년간의 연구 끝에 약 된장과 간장을 개발 사바의 대중들에게 보급했다. 지금은 서운암 주변 야산 20 만평에 100여종의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여 봄, 여름, 가을 다양한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운암에서 바라본 영축산의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자락은 알프스 웅장함을 앞에서 보는 것과 같았다. 봄이 오면 전국의 위원님들과 야생화 축제 현장에 함께 하기를 서원하면 아쉬운 취재를 마쳤다.

한국 최대의 성보 박물관

아름다움에 취해 걷다보니 어느덧 부도원에 다다른다. 통도사 산내에 여기 저기 산재해 있던 고승들의 부도와 비석들을 1993년 가람 정비 사업을 통해 이곳으로 옮겨왔다.

제도한다는 뜻과 통도산을 둘러싼 산의 형세가 인도의 영축산의 모습과 통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전시실은 통도사의 역사와 전래 유물을 전시하여 관람자들에게 통도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층으로 올라가니



승탑이라고도 불리는 고승 부도 60여기와 탐배, 공덕비, 중수비 등 60여기가 한자리에 있다. 부도원 앞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석단간이 하늘을 향해 서있다. 대부분의 당간은 지주 역할을 하는 석축과 청동으로 만든 당간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곳 당간은 구성체 모두가 화강암으로 만든 특이한 형태로 양산시 유형문화재 제403호로 지정되었다. 당간의 중앙에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 음각으로 새겨져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우리나라 최대의 성보 박물관인 통도사 성보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한국최초의 불교전문 박물관으로 성보문화재를 3만 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 부설 성보박물관이 유물 전시관의 기능만을 하는 반면 이곳은 학예 연구와 교육 문화기능을 모두 갖춘 박물관이다. 이박물관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 최초로 불교회화실을 개설하고, 높이 10미터 이상의 대형 괘불을 상시 전시한다는 점이다. 위원들이 박물관을 찾았을 때는 청주 보살사 괘불을 전시 중이었다. 높이 6미터의 이괘불은 화기를 통해 조선

이 박물관의 자랑인 불교회화실이 나온다. 통도사 각 전각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봉안되어 오던 불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불화의 밑그림인 초본을 비롯하여 소형 사경 변상도와 초대형 괘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불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기증 유물실에는 부산에서 내과의로 40년간 의술을 펼친 월처 김진조 박사가 기증한 한국화, 도자기 등 수집품들을 전시한다. 박물관을 나온 위원들은 원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경대성사의 유물도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서원했다.

항아리의 비밀을 찾아라.

통도사는 통도전을 끼고 구름지에 형성된 특이한 지형이다. 자장율사가 창건할 당시 신라의 가람배치는 정방형의 너른 들에 남북으로 전각을 배치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법식이었다. 그러나 통도사는 냇물을 따라 동서로 길게 배치된 자유로운 형태를 갖추고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로전과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중로전, 영산전을 중심으로 한 하로전으로 구분되어진다. 현재 경내에는 12개의 큰 법당과 영축산내 20개의 암자를 포함해 전각의

오전 12시 통도사 산문 앞에 모인 통신원들은 먼저 점심식사와 간단한 회포를 풀었다. 서울워크숍 이후 2달 만에 만난 통신원들은 그간의 안부를 묻고, 종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게재중인 진언행자 생활 광고에 대한 수주 방법과 지역 기사 전달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지역에서 가능한 광고와 기사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점심공양은 부산. 경남 신정회 신인록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에너지를 가득 충전 한 후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통도사 산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년의 노송, 위원들을 반기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하지만 동장군의 기세는 만만치 않은 겨울 바람을 불어대고 있었다. 위원들은 통도사 산문을 통해 일주문 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산문을 들어서자 고찰로 인도하는 송림길이 우리를 맞았다. 그야말로 명품길이다. 통도전을 따라 일주문까지 약 1.6KM 정도 이어진다. 길의 좌, 우로 홍송(혹은 적송)이라 불리는 수백 년 된 소나무는 춤을 추듯 오솔길을 감싼다. 사람들은 이 길을 무풍한송(無風寒松)길이라 부른다. 편집위원들은 그동안 자주 참배하지는 못하지만 통도사를 들 때마다 차를 타고 일주문 근처 주차장에 내린 기억들이 많다. 그만 놓쳐 버렸던 것이다. 문명의 편리함에 천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수많은 불자들과 객들이 그러했듯이 소나무의 군무를 바라보며 부처님 전으로 다가가고. 위원들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주인공이 되어 솔밭 길을 걸었다.



자장율사와 금강계단

통도사는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삼보사찰 중의 하나다. 삼보는 불, 법, 승을 의미한다. 통도사는 그 중 불보사찰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이 있다. 자장율사는 신라의 진골 출신으로 속명은 김선종이다. 세상의 번거로움이 싫어 깊은 산에서 수행하였다. 선덕여왕 5년에 제자10여명과 함께 당나라로 불법을 배우러 떠났다. 이곳에서 자장율사는 청량산 문수보살상에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사와 발우, 불두골 한조각과 함께 사구계를 받는다. 스님은 신라로 돌아와 분황사에 주석하고, 황룡사 9층 대탑을 조성하고 제2대 주지에 취임한다. 통도사에 진신사리를 봉안, 금강계단을 조성하여 승려들의 비구계를 내리는 성역으로 조성한다. 지금도 조계종에서는 단일계단으로 비구계는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전수한다. 위원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 두 손 모아 참배하고, 총지종 교세발전을 서원했다. 대웅전은 두 개의 건물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특이한 형태다. 동서남북으로 4면 현관의 이름을 달리한다.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남쪽은 금강계단, 북쪽은 적멸보궁이란 이름으로 편액을 걸었다. 모두가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을 표현한 것으로 조선 중기 불교 건축의 특수한 형태로 주목 받고 있다. 위원들은 남쪽의 금강계단 현관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경내 취재를 마쳤다.

취재=편집위원 박모정, 박정희, 최영아, 강경민, 정각사 통신원 김경애 한미옥 김윤경 이상록, 덕화사 김길영, 안선옥, 윤숙희, 실보사 오인숙 김현이, 운천사 이수연, 한경림, 단음사 권순복, 정리=김종열 기자





다라니 수행

-다라니 수행을 통한 제자리 찾기

비움과 소통 간, 일산 법상스님 지음



불자들이 조석으로 외우는 천수경의 핵심 진언(眞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한 수행지침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 태고종산 덕양선원 법상스님이 엮은 이 책은 다라니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가장 쉬운 안내서이다.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무량억겁 전 '천광왕정주여래'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한 관세음보살과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설하신 진언이다. 관세음보살은 천광왕정주여래로부터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 번 듣고 초지에서 제8지로 경중 뛰어올랐다 전한다. 제8지는 부동지(不動地: 대승보살의 십지중 여덟째, 무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계위)는 불퇴전지이다. 즉 흔들림이 없는 경지인 것이다. 청정한, 물들지 않는, 나고 죽음이 아무 관련이 없는 여여한 경지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수지독송 하게 되면, 보살 십지와위(十地果位)의 여러 단계를 차례로 거치지 않고, 즉시 본래의 마음자리에 들 수 있다.

관세음보살은 보살의 모습으로 나두고 있지만,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전에 성불하신 부처이다. 명호는 '정법명 여래'이고, 일체중생을 성숙시켜 안락하게 하기 위해

대비원력으로 보살의 형상으로 나두고 계신다. 일체 중생의 안락을 위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은 자비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광대원만무애대비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자들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해석하지 않고 뜻도 모른 채, 설사 뜻을 안다고 해도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뜻을 해석하지 않고 오직 독송함으로써 좋은 마음이 나오기 이전의, 좋은 글이 나오기 이전의 우리 생명의 본래자리에 닿는, 근원에 바로 닿도록 하는 수행이다. 뜻을 알지 못해도 오직 일심 독송함으로써 지혜와 자비의 광명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열할 때 잡념이 사라져 버리면,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나인지 내가 신묘장구대다라니인지 구별 없이 그대로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오직 뚜렷하게 신묘장구대다라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잡념 다 버리고 오직 주인자리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올인 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과 온 세포에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스미도록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때에 무량삼매(無量三昧: 한량없는 삼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가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빛이 되고 지혜명어리가 되고 자비명어리가 됩니다."(본문 중에서)

수행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수지 독송할수록 잡념이 걷히고, 근심 걱정이 점차 사라지고, 두려움이 걷히고, 미움이나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빈다. 괴로움도 걷히며, 과거에 맺어있던 회한도 사라지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잡념들이 사라져서 마음이 비워지게 된다. 마음이 텅 비어지면서 몸도 점차로 가벼워지고, 청정해지고, 인연이나 환경, 운명도 마음이 걸리는 만큼 청정해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저자 법상스님은 다라니 수행을 통한 경지를 "수행을 계속 하다보면 모든 마음이 사라져서 텅 비어버리고, 몸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고, 안이고 밖이고 다 맑고 밝아져서 오직 신묘장구대다라니만 뚜렷하게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와 하나가 되어 내가 없어져버립니다."며 다라니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체험하고 그 마음의 힘을 동체대비로 쓰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법상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이 책의 말미에는 한국 선지식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과 깨달음, 영험담, 수행법을 첨부하였다.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두릅 베이컨 말이 - 은은한 봄 향취의 샐러드



** 두릅 새순과 두릅나무의 효능

두릅 순은 은은한 향기와 부드럽게 씹히는 씹살한 맛으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 고급 산채이다. 두릅은 두릅나무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이른 봄에 읍이 트기 전에 순을 30cm 정도로 잘라서 땅에 꽂아 심으면 뿌리를 내리면서 두릅 순을 채취할 수 있다. 참두릅과 개두릅이 있는데 새순은 모두 식용한다.

두릅나무의 나무 껍질을 생약에서 총목피라 하고 뿌리 껍질을 홍근피라 하며, 봄, 가을에 취한 뿌리 껍질이 효능이 뛰어나다. 효능으로서는 건위, 이뇨, 진통, 수렴, 거풍, 강정 등이 알려져 있으며, 민방에서는 위궤양, 위궤전, 신경염, 각기, 수종, 당뇨병, 신경쇠약, 발기부전, 관절염에 사용한다.

두릅 순이 계절인 시기이므로, 채취한 두릅을 데쳐서 베이컨에 돌돌 말아 봄의 향취 그윽한 전채를 만들어 보자.

** 재료 준비(1~2 인분)

두릅 6개, 베이컨 6장, 허니머스타드 2큰술, 땅콩버터 1큰술, 레몬즙 1/2큰술, 맛술 1/2큰술, 식용유 약간, 소금 약간.

** 조리 방법

1. 두릅은 가시가 있는 밑동은 잘라 버리고, 순에 남아 있는 껍질은 돌려가며 벗겨 깨끗이 씻는다.
2.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두릅을 살짝 데친 후 찬 물에 헹구어 물기를 뺀다.
3. 베이컨의 각장에 두릅을 한 개씩 얹어 말아 놓는다.
4. 허니머스타드, 땅콩버터, 레몬즙, 맛술로 소스를 만든다.
5.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베이컨에 말은 두릅을 돌려 가며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6. 구워진 두릅 베이컨 말이에 4번에 만든 소스를 두르면 요리가 완성된다.

** 기타 팁

1. 프라이팬에 두릅 베이컨 말이를 너무 많이 익히면 두릅의 숨이 죽고 색이 누렇게 변하므로 주의.
2. 두릅 베이컨 말이는 전채로도 좋고, 와인 음용할 때도 어울린다.

편집 정리 = 백지순 위원

전시공연

정열의 색채, 화가 천경자

-서울시립미술관 상설전시 『천경자의 혼』

천경자 화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꽃과 여인'이다. 우리나라 서양화단에 강렬한 색채의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상설전 『천경자의 혼』은 한국 서양화의 대모로 불리는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고마운 공간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02년 5월부터 상설로 『천경자의 혼』을 전시한다. 천경자 화백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상설전은 기증작 93점 중 총 32점을 선별·재구성하여 전시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테마에 따른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천경자 화백 특유의 자전적 채색화를 비롯하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자화상, 해외 스케치 여행 중에 만난 이국(異國)여인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 등 여행을 통해 제작한 여행풍물화 및 문학 기행화, 화창 시절의 습작 등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만날 수 있다.

천화백의 작품은 평론가들에 의해 '자전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녀의 작품이 '자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속에 담겨있는 모티프나 전개가 작가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작품에서 작가는 자신의 삶과 꿈, 환상, 동경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렇듯 작품에 드러나는 특유의 문학적 감수성과 서정성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기인한 (자전적)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 자신은 이러한 감성을 한마디로 '한(恨)'이라 표현했다.

특히 천화백의 작품 중 여성으로 일관되는 여성시리즈 인물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일종의 '자화상(自畫像)성격의 인물화'이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이나 여행을 통해 만난 '실재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린 인물화'이다. 인물화에 나타나는 여인들은 단순히 작품 소재만이 아닌 바로 작가 자신의 투영된

모습, 즉 분신(分身)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묘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를 그려왔고, 또 이것이 천경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분신으로 탄생되는 수단이 되어 인물화는 그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천화백은 화가로서 전시 화집을 출간한 것 외에도 수필집과 자서전, 화문집(畵文集) 등 20여권의 문학서적을 출간하는 등 문단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화가이면서 문학인이기도 한 그의 족적은 수많은 스케치 여행과 그 여행에서 제작했던 작품들에서 드러난다. 여행을 하면서 문학인들의 자취를 찾아다니며 이를 화폭에 담아내었다. 새봄을 맞아 서울시립미술관의 『천경자의 혼(魂)』에서 그녀의 강렬한 색채와 인생을 만나보자.

서울시립미술관=김종열 기자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자경단(子經丹)

종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분임 자궁어혈케거



생활액분석기



자궁팔경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총지학생문예

아라 수련원 체험 학습

동해중 1-5 김민성

오늘 드디어 수련회를 간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전날부터 가방을 꾸리시며 잔소리를 하신다. "나도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인데....." 암튼 엄마의 구구 절절한 말씀을 한번 더 듣고 난 후에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입학을 하고 친구들과 처음으로 하는 여행이라 아직까지 서먹서먹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 엄마 왈 '노는데 목숨 거는 놈' 아닌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동안 잘 모르고 지낸 친구들과 일흔이 될 좋은 기회로 생각 하고 즐겁게 보내야지.....

버스가 출발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사이 버스는 벌써 진주성에 도착 하였다. 작년에 부모님 따라 장우들과 연등 축제에 와본 기억이 있어서 진주성이 낯설진 않았다. 우리는 진주성을 구경하고, 준비 해온 도시락을 맛나게 먹은 후 함안에 있는 수련원에 도착 하였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에 시장바닥처럼 약자지걸 하였는데, 갑자기 웬 날벼락!!! 수련원 선생님이 갑자기 군대조교 같은 모습으로 변하며 가방 들어올리기, 기마자세, 누워 다리 올리기 기타 등등을 시키며 우리의 혼을 빼놓았다.

저녁을 먹고 도전 골든벨을 하며 즐거운 오락 시간을 보낸 후 잠자리에 들기 위해 각 자의 방에서 잘 준비를 하였다. 20명이 함께 자는 방이라 입냄새, 발냄새, 모든 것들이 불편 하지만 친구들이랑 함께 자는 자리라 그래도 포근하게 잘 수 있었다.

다음날, 낯설어서 인지 평소시 집이었다면 엄마가 깨워 주셔도 일어날까봐인데, 기상시간도 되기에 한명 두명 일어나 나 있다가 어제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줄 알았다. " 왜 벌써 일어 나는 거야? 별 반

고 싶어! 빨리 더 자!!....." 속으로 '군대가 따로 없구나 나무아미타불.....' 암튼 우리는 씩씩하게 밥을 먹고 골프와 염색 체험을 하였다. 아빠 친구사무실에서 골프를 치다 물집이 생긴 것이 생각나 골프를 조심해서 쳤다. 광수가 힘이 세서 인지 제일 잘 치는 것 같다. 그리고 오후에는 뗏목을 탔는데, 뗏목을 타기도 전에 누워서 손발들기, 기마자세 등 별받는 것 인지 뗏목타기 인지 모를 준비운동을 했다.. 어느 날 아빠가 말씀하시길 " 군에 가서 유격 훈련 한번 받아 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광고 문구가 생각나는 장면이었다. 암튼 우에곡절 끝에 뗏목도 타고 축구도 하고 마지막 밤의 하이лай트인 캠프파이어까지 즐기며 아쉬운 수련회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어제와 달리 제법 기상 시간에 맞추어 일사 불란 하게 움직였다. 교육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 이었다.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집으로 갈 귀가 준비를 한 후에 강당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며 수련회의 마지막을 보내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왔다. 2박 3일 동안 설레고 즐겁고 힘들었던 시간 이었지만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얼차려도 함께 받고 함께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알게 되고 친해 졌다는 것이 제일 큰 수확이라 생각 한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모두 알아서 해결 해 주시고 하였지만 이제는 나도 여전한 청소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스스로 하는 습관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화이팅! 수련회!!!!

불자생활법률



집을 팔아서 빌려간 돈을 갚겠다던 친구가 자신의 집을 부인 명의로 이전 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저는 평소 친하던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친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친구는 얼마 전 자기의 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저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 「민법」 제403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권 이전을 한 법률행위를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당시 채권자를 피할 목적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피하려는 행위가 발생되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피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재산을 이전 받은 사람(여기서는 친구의 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하려는 사실을 알고 재산을 이전한 수익자는 채권자와 서로 판 약의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재산을 이전 할 당시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이전한 재산에 대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하려 한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일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이미 부속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를 피하려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여기서는 친구의 부인)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례는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이례(異例적인) 행위에 속하는 일로서 경합적인 상식에 비추어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대법원 78다 226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빚을 진 친구가 그의 부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詐害行爲)로 보여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친구와 친구 부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친구에게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친구 부인에 대하여는 둘 사이의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친구 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면서 원상으로 돌아온 친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3조).

또한 이번 경우 처럼 친구와 그 부인이 서로 짜고 허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친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친구부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하동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02-596-4600)

총지동의보감

남성 불임의 원인과 예방



조선화 원장
(여성 미 의학원)

일반적으로 결혼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경우 1년 내에 임신될 확률은 95%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불임이라고 보아 남녀모두 검진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 건강한 임신을 위한 치료와 노력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세대에서는 불임의 원인을 거의 여성에게만 돌렸습니다. 그러나 불임원인 중 30-40%에서는 남성의 문제로 인한 남성불

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임신이라는 상황을 밧에 씨앗을 파종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즉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이루려면 봄 여름내내 농부가 열심히 밧을 일구고 거름을 주어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씨앗 또한 건강하고 튼실해야만 깊숙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명화되고 기계화되며 편리해진 현대사회에서 남성과 여성들은 복잡 다양한 해지는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인체는 소유주에 비유합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와 끊임없는 해와 달의 차고 기울음 등의 자연의 기운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며 건강에 기준인 것을 간과하여 불규칙한 식생활과 생활환경,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전자파 등으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중독유지와 번성의 근간인 임신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남성불임의 원인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살펴보면

▶ 남성불임의 원인

한의학에서 남성불임의 원인으로서는 생식력을 담당하는 신장의 정기(精氣) 부족으로 정자 및 정액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와 원기가 허약해 정자의 활동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과도한 성행위에 의한 생식능력 저하 및 심리적 불안이나 조루 등을 남성불임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남성불임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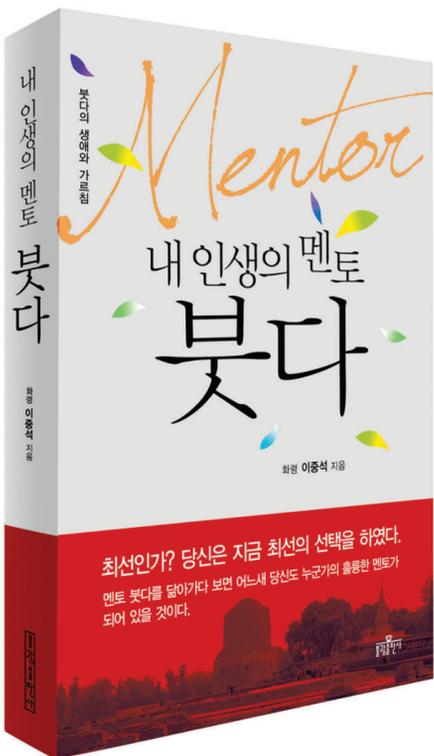
남성들의 경우 양정(養精)을 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나 신장 등이 생식기능을 담당하게 됩

니다.

즉 간의 율체를 인한 열을 풀어 소동시키고 신장의 기혈을 북돋아주어 건강한 정자의 생성과 운동 등 수태능력을 돕게 하는 치료들이 시행됩니다.

▶ 남성불임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 * 과도한 성생활은 금물입니다!
- * 과음과 흡연은 성능력을 저하시키니 주의하세요!
- * 하체를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 * 꾸준한 운동으로 복부비만을 줄이고 예방하세요!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려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중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풍경소리

둘개 닮기



80여 년을 산다는 솔개는
40세쯤 되면 산정에 올라 반년에 걸쳐 고행을 한답니다.
길어져 쓸모 없게 된 부리는 바위에 쪼아 부수고,
먹잇감을 움켜잡지 못하는 무딘 발톱도 새로 난 부리로 뽑아
버립니다.
무거워진 깃털마저 뽑아 정리한 후,
새로운 부리와 발톱, 깃털로 새롭게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낡은 것을 부수고 스스로를 비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가득한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의 주인공들을 그려 봅니다.

이용성 | 풍경소리 사무총장

삶의 문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면
그것은 내가 삶에서 배워야 할
어떤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나는 일야말로
내가 지금 체험하고 깨달아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나쁜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배움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배움과 경험을 회피할 때 삶은 둔화되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울 삶은 성장합니다.

범상 | 균중법사



VISUAL 불교총전 제33화

사랑하는 이를 가지지 말고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글.그림/정수일
<http://www.drawing라훌라.kr>

부처님의 사랑 중생의 사랑

나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오! 아름다운 김진사 님 셋째 따님.

나도? 나는? 나는?

물론! 차별이 없지.

사랑합니다! 이 꽃을 받아 주세요.

웬이야?! 너 같은 하인이.

넌 죽었다.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므로 미움이 생길 일도 없다.

대대대비로군요.

돼지도 사랑한다.

으! 사랑엔 국경도 없다던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몇 달치 새경을 털어 산 꽃인데!

하지만, 혹시 나는 미워하지 않나요?

헉! 그, 그대는?

도둑 거사님!

미워! 미워! 아가씨 미워!

콕!

콕!

하하하! 걱정 마시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므로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 귀의 합니다.

사랑은 미움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말라.

악!

욕됨을 참아 분함을 이기고 착함으로써 악을 이기라.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3장 번뇌편 p207

이달의 사진 스님 취하세요?



사진= 정각사 통신원 이상록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제품 종류

- 된장 1Kg : 20,000원
- 간장 1.8L : 10,000원

불교와 3.1운동

조선 독립의 의지로 전국의 불자들이 하나 되었던 그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제국주의에 온 백성이 분연이 일어나 항거한 3.1일 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만큼 3.1운동은 온 겨레가 공동으로 발원하고 저항한 거대한 민족사의 혁명이었다. 또한 그 운동의 주역으로 불교는 가장 먼저 일어나 선봉에 섰다. 당시 불교계의 독립운동가로 백용성 스님, 한용운 스님 등은 3.1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민족의 대표였다. 3.1운동 92주년을 맞아 두 선사의 삶을 통해 불교계와 3.1운동을 돌아보고자 한다.

민족대표 33인과 대각사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에 위치한 '대각사'는 한국 근세 불교의 흐름에 있어 안국동 선학원과 더불어 가장 역사적인 장소다. 일본 강제 통치하에 흩어진 조선불교의 중흥을 위한 대각교 운동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용성스님(사진 왼쪽) 나이 47세 되던 해 스님은 산중 수행을 잠시 접어두고 속세에 뛰어들어 본격적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통한 중생구제에 나서기로 작정한다.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곧 중생구제이고, 먼저 불교의 대중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스님은 1911년 홀연 상경하여 우선 신도의 집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고, 대중불교와 호국불교로서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려 했다. 그 해 4월 스님이 종로구 봉익동(鳳翼洞) 1번지에 대각사(大覺寺)를 개창하면서 본격적으로 대각교운동을 전개하여 갔다. 스님이 주창한 대각교운동이란, “내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자(自覺覺他)”는 것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심화되어 가는 불교의 왜색화를 막고자함이 그 첫째 목표이고, 또한 대중불교와 호국불교로서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각교운동의 본산인 대각사는 대중불교와 호국불교의 전통을 전파하는 포교소이자 수행장이었다. 한용운 스님 등 많은 불교계 민족운동가들이 조국과 민족의 정태에 대하여 스님과 상의 논의하는 독립운동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1919년 3·1 독립선언의 민족대표로 불교계를 대표하여 동참한다. 당시 천도교의 최린·기독교의 이승훈 등과 함께 3·1운동을 앞장서 추진하던 한용운 스님은 2월

25일경 선생을 대각사로 찾아왔다. 한용운 스님은 지금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분연히 일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 용성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를 투합한다. 평소 조국 광복과 민족 독립을 중생구제의 일환으로 여겨오던 용성스님은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서명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스님은 기미년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태화관(泰和館)에서 천도교·기독교 등 다른 종교계 민족대표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대한독립만세를 3차례로써 3·1운동의 불꽃을 지켰다.

스님과 민족대표들은 일경에 체포되어 경무총감부로 압송, 조사를 받는다. 스님은 일본인 판사가 독립선언서를 보이며 이 취지에 찬성하는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떳떳하게 대답하였다.

또 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는가 하고 물으면, 스님은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 마음으로 좋아서 찬성하였다”고 하였다. 서슬퍼런 일경의 심문 앞에서 조선통립에 대한 의지를 호국불교의 신념으로 표출하였다. 스님은 일제에 의해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민족 운동

만해 한용운 스님(사진 오른쪽)의 삶은 한마디로 불교의 유신과 민족 독립을 위한 구도의 역경이었다.

어려서 동학혁명에 가담하였고, 만주에서 광복운동에 참가하기도 한다. 또한 승려로서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에 입각하여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한용운 스님은 민중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유신'지를 운영하던 1919년 2월 24일,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협의를 한 최린으로부터 계획을 듣는다.

또 최납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스님은 즉시 대각사 주석하며 불교 개혁과 조국의 독립을 발원하던 용성스님에게 거사계획을 알린다. 불교계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여 용성스님과 나란히 민족 대표 33인에 서명한다. 한용운 스님은 옥당 최납선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독립간청서 또는 독립청원서로 명명하려 하자, 독립선언서로 표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더불어 공약삼장을 추가하여 조선 독립의 결의와 정당성을 더 강하게 표현했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의 태화관에 열린 독립선언식에서 한용운 스님은 33인을 대표해 '조선 독립의 정당성과 의지'를 만방에 표한다. 일경에 체포된 이후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계속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1926년에는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 저항문학에 힘썼다.



또한 신간회(新幹會)운동과 조선불교청년동맹을 통한 불교청년운동을 강에 앞장선다.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긴급회의를 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한다.

전국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중앙학림(현 동국대) 청년불자

백용성 스님과 한용운 스님의 참가로 불을 지핀 독립운동은 불교계 청년들에게 이어진다.

불교계 종립학교였던 중앙학림(현 동국대) 학생들은 한용운 스님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 불교계에 배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를 기점으로 학생들은 항일투쟁에 직, 간접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된다. 1918년부터 중앙학림(동국대 전신)의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용운 스님은 1919년 2월 28일 10,000장의 독립선언서를 인수받는다.

그날 밤, 평소 자신을 따르던 중앙학림 학생들을 자신의 계동 집에 모이게 하였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봉신을 비롯하여 신상완, 백성욱, 김상헌, 정병헌, 김대용, 오택언, 김법린, 박민오 등 이었다.

이들 10명에게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며 3월1일 오후 2시 이후에 시내 일원에 배포하도록 당부하였다. 한용운스님은 학생들에게 “서산(西山)과 사명(泗溟) 양 대사의 범손임을 굳게 명심하여 불교 청년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우리 불도가 다른 교도들의 앞장을 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고 비장한 격려를 하였다.

만해 스님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은 중앙학림 학생들은 사태가 시급함을 느끼고, 인사동에 있던 범어사

학생들은 가장 연장자인 신상완을 총참모로 추대하였고, 백성욱과 박민오는 참모로 중앙에 남아서 연락책을 겸하여 진두지휘를 하게 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 연고가 있는 지역의 사찰로 내려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할 것을 결의하였다. 3·1운동의 전개는 이들 중앙학림 학생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법린과 김상헌은 동래 범어사를 책임지고, 오택언은 양산 통도사를, 김봉신은 합천 해인사를, 김대용은 대구 동화사를, 정병헌은 화엄사를 중심으로 전라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서울 시내를 담당한 학생들은 3월 1일 새벽 3시에 각각 회의장을 떠나 시내 포교당과 서울 근교의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으며, 지방을 담당한 학생들은 3월 1일에 있는 서울 시내의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한 후, 독립선언서를 간직하고 제각기 지방 사찰로 향하여 지역별 만세시위운동을 지도한다.

이로 인해 중앙학림은 3.1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강제폐교까지 당한다.

불교의 청년들은 조국의 독립과 불교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다. 독립선언서를 가슴속 깊이 품고 전국의 사찰로 떠나던 불교 청년들은 이후 항일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다. 해방이후 한국불교와 동국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

취재,정리= 김중열 기자.

진언행자 생활광고

주방 생활가구 전문회사 화영기업(주)

'나무촌' 관리실장 박인자입니다.

틀에 얽매인 사고가 아닌 미래지향적 창조적 사고와 신뢰만이 생존의 기틀이란 신념아래 여래 '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 도어만 교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299-1
 상담전화: 031-983-3524, 3560 팩스: 031-983-3594
 핸드폰: 011-706-4080 홈페이지: www.namuchon.com

아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점

풍원(豐元)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모든 분들을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단체 및 연회석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4(오금초등학교 맞은편)
 예약전화: 02-3401-5919

친환경 고려인삼

아달산삼

산삼, 산양삼, 무농약이상의 인삼 등
 친환경 고려인삼을 공급합니다
 암을 비롯한 난치병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에 따라 체질 맞춤형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유기농인증 제12-02-1-22

충북 청주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관 14호
 상담전화: 010-2715-7377 / 010-7306-7379

총지중보 구독신청

총지중보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밀법을 홍보하는 교화의 방편입니다. 중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총지중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구독신청: 통리원 02)552-1080
 *가족과 친지들에게 한부씩 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노후는 든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 의료실비, 종신 보험 등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화랑대지점
 파이낸셜 컨설턴트 강경민(총지사 교도)
 상담전화: 017-325-4248

맛춤떡 전문

떡사랑

맛있고, 영양많은 떡을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돌/백일/이바지/결혼/회갑/개업/각종행사

주소 : e-편한 대림 센트레빌 상가 102호
 임진숙(총지사 교도)

주문전화: 02)897-7741
 010-2387-7037

생각더하기 출판사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 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 운문 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불가집 각종 경전류 발간

TEL : 070-4249-1987 www.mindplusbook.com

진언행자 생활광고 모집

진언행자 생활광고는 교도여러분의 사업 번창의 지름길입니다. 각 사원의 중보 통신원을 통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대표신청문의
 편집위원 강경민 017-325-4248